

강학회

천국의 미소 공모전

- 사라진 미소를 찾습니다

응모를 원하는 사람은
소망이란 버튼을 누르십시오
주어진 공간을 보십시오
공간의 여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뽀족하거나 둥글거나 거칠거나
주어진 것은 모두 당신 것입니다
모든 조건은 다르지만
모두 같은 조건이기도 합니다

방법은
소망의 빛으로 문을 찾는 일입니다
당신의 벽은 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둠의 문을 여십시오
하늘이 보일 것입니다

당신의 문에서 그 하늘이 보입니까?
얼굴을 보십시오



이대 교육과 졸업. 1976년 도미. 샌프란시스코 거주. 2003년 『순수문학』 시부문 신인상. 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세계한민족작가연합,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사라진 미소가 보입니까?
당신은 천국사이트에 가입되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미소가 천국문의 패스워드입니다
로그인 횟수에 따라
당신은 정회원이 될 것입니다.

강화식

제 3의 공간

후을
후을
벗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갈아입는다.

이제는 당기지도 않는 뒤 꼭지.
두 개의 싱싱한 흑백 논리가
부들부들 떨다 좁은 무덤 속으로
기어 들어간 지 이미 오래다.

그래?
발 없는 큰 산
금강산도 갈아입는데
비틀거리는 두 발로
한 눈 질금, 곧은 심지 감추고



서울 출생, 2007년 미주 《중앙일보》 시부문 당선. 『한국미래문학』 『문학세계』 신인상 수상. 미주시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세상을 자꾸 갈아입자
팔다리가 편한 대로.

너도 봉래산
나도 풍악산
우리 모두 개골산.

고영준

망아지

아니다! 아이들아, 붙잡지 마라
그냥 이대로 걷다 가련다.
비척거리며 걷는 것이 천직인 것을
어차피 제자리걸음인 것을

제 자리에서
100년 묵은 고목처럼
하늘로 울어도 몸은 비는 세월
걸어도, 걸어도 그 시간인 것을

내 등을 때리지 마라
먼지밖에 더 나오겠느냐
내 목을 끌지 마라
울음조차 막힐라



미주한인장로회 신학대학 졸업, Faith Theological seminary 졸업.
2002년 미주중앙신인문학상 입상, 기독교문인협회 회원.

구자애

고무신

뚜벅뚜벅 올림이 카랑카랑한 발자국 소리에는 아직 상하지 않은 야심과 좀처럼 바스러질 것 같지 않은 웅골찬 욕심이 들어 있다. 비비면 비빌수록 윤택이 나는 구두, 제대로 된 門이라 생각하고 들어왔다. 똑바로 걷는데도 지나온 행적들이 틀어져 있다. 길이 틀렸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익숙해지지 않았을 뿐.

길가다 수선집이 많았지만 지나쳐 버렸다. 계속 한쪽만 닳도록 놔둔 것이 화근이었다. 향간에는 소문만 무성했다. 이 구두를 신었던 사람, 냄새를 맡았던 사람, 근처를 서성댔던 사람들, 이들이 새로 근사하게 단장한 門, 그 많은 게이트로 뒤돌아 나올 땐 모두 같은 고무신을 신고 있었다.

밑창이 없어도 질기디질긴,
아무리 비벼도 더 이상 光나지 않는,
비울대로 비워 내야 신을 수 있는,
성불들이 즐겨 신던 그런 고무신,
스스로 벗고 신을 줄 아는
명료함의 차이(差異)는
극과 극을 달리는 위력이 될 수 있다.



『문학산책』 신인상. 한국일보 문예공모전 시 당선. 미주시문학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회원

김경용

낮잠

밖은 사나운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뽕송뽕송한 이불 속
아늑한 잠이
너무나
좋아
아!
이처럼 천 년을 긴긴 잠에 취하여
달콤하게 보낸다면
얼마나
좋아
?
그동안 세상은 골백번 바뀔 테니
아늑한 꿀잠인들
뭐 그리 좋을
라구
?
천 년 후에 깨어나 풍문에 귀를 열면



뉴욕주립대학교(버팔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 미주문학 시부문 신인상 (1998년), 마운트 버논 나자렌 대학교 명예교수.

놓쳐버린 소식뿐, 귀 트고도 귀머거리
별빛에 눈을 떠도
떠도는 허깨비뿐,
깁마른
헛손짓
뿐

.
이불을 박차고 밖으로 뛰쳐나가세, 소리를 치세
어이, 저 양반 말 좀 합시다
오늘이 무슨 길일이기에
이 귀한 비바람을
혼자 맞고
있소
?

김내수

올빼미 변주(變奏)

내겐
양이 음이요
음이 양이야
눈을
낮엔 감고 밤에는 뜬다

낮에
눈 감으면 갈색 검은 밤
해를 따다 내 꿈나라를 밝힌다

밤에
왕방울 눈 부릅뜨면
눈섬달이 보름달됐다가
반쪽되는
달의 숨소리 가늠해 듣는다
잔별 하나 떨어지면
둥우리에 주워 담고



전남 곡성 출생. 내과 의사. 『문학세계』 2001년 시 당선.

그 자리 하늘에다 내 혼백을 재운다

푸르른 하늘 가에 허물 벗고
잔별되어 떠 있으면
외롭지는 않겠지
속앓이는 없겠지

그래도

그리움은 남아 있을 거야
못다한 사랑
명든 흔적 지워지지 않을 거야

땅에서처럼

김병현

주말 산행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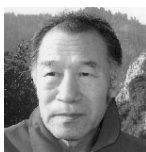
한 시간 여를 달려도 인적 한 둘 스쳤을까 한적 산길.

산중턱 비포장 사잇길 초입에 버려진 듯 낡은 나무상자.

그 위에 누구네의 뒤뜰 수확물인 듯한 외호박 서양오이 양파 토마
토 꽃과일 들.

화폭에 옮기지 않아도 정물화.

올개닉 요리사인 집사람은 정물화를 몽땅 해체해 갈 욕심인데 가격
표도 가격을 흥정할 정원도 없고 돈통이 줄고 있는 것을 보면 공짜도
아닌 것 같고 돈통까지 들고 튀어도 충 소며 쫓아올 경비병도 없고.
우리 부부는 한참을 맛보며 혼란을 고민하는데 문득 집사람의 안경알
속에 하늘이! 내 눈동자 속에도 같은 그림이 걸려 있었는지 우리 부부
의 합작결론은 가져가는 것만치 양심껏 두고 가는 것이었다. 인적 드
물고 하늘 가까운 곳에서 양심을 단위로 형성되는 시장거래! 오늘은
이쯤에서 하산해도 되겠다.



경북 예천 출생.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역임. 제1회 미주시문학상 수상.
현재 가주 베이커스필드 거주.

김성수

대화

대화는 황홀한
 무지개 같아요
 한 끝엔 사랑이 있고
 다른 한 끝엔
 용서가 있어요
 위기의 부부일수록
 대화하세요
 대화가 끊어지면
 불행이 올 수 있어요
 한 침대 누워서 등 돌리고
 서로 이상한 꿈 꾸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별거해 있더라도
 시작하세요
 전화든 편지든
 전자우편이든
 성실하게 조금해 말고요



제2회 재외동포 문학상 수상,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수개월 층층 얼었던 강이
하루 이틀에
풀릴 수 없잖아요
부부전쟁은
말싸움부터 시작되니
말속의 독즙을
삼가하세요
폭언을 삼고
평화를 걷을 수 없어요
눈물이 초롱초롱한
애를 보세요
천사의 미소를 기다려요
회개는 얼어붙은 마음
녹이는 봄비
몸도 마음도 갈 길도 지친
아내의 뜨거운 얼굴도
가슴의 상처도
차가운 발도
따스하게 씻어주세요
전쟁이 끝나야
평화가 깃들어요

행복한 가정은 천당 같고
불행한 가정은
지옥 같아요
대화는 잃었던 사랑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오작교예요
사랑도 때로는
쭈고 아플 때 있어요
대화로 풀지 못 할
아픔은 없어요
지금 당장 소리쳐 봐요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김신웅

이슬 하나에게

바람, 꽃 간지르고 간 뒤
 만나는 이슬 더 많다
 벗기지도 깨뜨리지도 못하는
 밤에 빚어진 방울 하나
 낮설지 않아도
 다가가 손 대지 못하는
 마음 끝에서 우러나
 속잎같이 피어 올라
 하늘 간지르는 꽃잎으로 피면
 내 앞에 와 설꺼나

미치지도 못하는
 애타는 마음 흘러
 사막에 햇볕으로 고이는
 한낮에도 가끔은
 이슬로 맺히고 꽃으로 피어
 다가와 남짓남짓



50년대 토요 동인, 『시와 시론』으로 등단. 해외동포문학상, 가산문학상 수상. 미주 한국기독교문인 협회 회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대합실』, 『바람없는 날에도 뜨는 연』이 있다.

가슴 채우다가
남의 이야긴양 흘날려버려도
천 개의 별이 와 박힌 듯
구석구석 비쳐대는구나.

김영교

더불어 사는 나무

산행을 하다 숲에 들어가면
 문득 사람이 나무라는 생각이 든다
 햇빛을 나누느라 나무는 곧게 자란다

나무끼리 이웃이 되어
 산 크기로 높아지면 하늘과 친하고
 낮아지면 마을과 친하고
 어두워지면
 산새와 들새의 집이 된다

사람 숲에서는 사람은
 심겨질 자리를 자신이 선택하는 점과
 덕목일수록 그 그늘이 강화도까지 뻗지만
 몇 번의 봄이 와도
 일단 죽으면 다시 잎이 돋지 않는 게 다르다

나무 사이에 서면 나는 부끄럽다



안데스 문학상, 해외 문학상, 이화문학상 수상.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우슬초 讚歌』, 『신호등(Traffic Lights)』, 『물 한 방울의 기도』, 『너와나, 그리고 우리』, 『소리 지르는 돌』, 산문집 『길 위에서』가 있다. <http://www.poet.or.kr/kyo>

혼자 햇볕도 독차지 하려 했고
앞만 내세워 남의 눈에 띄이기를 좋아했다
흔들리어 주면 되는 걸
바람에 꺾일까 걱정 많은 나무였다

숲에 들어가 보면
나무, 그 사이 길, 그 길옆 낮은 들꽃
그리고 어우러진 바위, 물소리 새소리
이제 작은 내가 보인다

남의 눈에 안 보이는 앞의 배면
광합성의 기공을 엽맥 끝에 총총 매달고
믿음의 가지에 실하게 붙어
동쪽도 북쪽도 빈 공간이 있으면
그리로 뻗기를 자원하는 나무이고 싶다.

김인자

후회

화분에 물을 주다가 보았네
 물이 말라 비비꼬인 줄거리
 바삭 종이 같은 이파리
 서 있는 것 포기하고
 부르르 떨리는 바람에
 바닥에 누워버렸네
 이제 물을 주어도
 낡버린 희망
 흘러가 버린 강물
 창공의 어디에도 빈 공간
 잡히지 않네
 티눈같이 박힌 장면
 각막으로 조여오고
 백색과 흙색의 다툼만 살아남아
 이원의 좁은 골짜기를 지나는
 현기증이 엄습하네
 햇빛에 칼날같이 반사하는



서울 출생. 이대 약대 졸업.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역임. 시분과 위원장. 월간 『문학세계』 신인상. 제 1회 동포 문학상 입선. 국제 시인협회 편집자 상. 저서로는 시집 『심안으로 보는 길』이 있다.

투명하게 얼어버린
툇 떨어지는
세월의 주름
사리로 남은 아픔
바람에 흔들리네

김형오

나비 달을 물다

해보다 먼저
 풀꽃들 잎 여는 소리
 가시 보파리 싸 들고 건들건들
 저 풀 지나 이 꽃까지 기웃거리며
 한끼 부칠 자리 틀어주다

대낮 조각달은
 제 속마져 거슬러 버럭
 숨부터 거칠게
 바닷물 훌훌 끌어다
 멀쩡한 들판을 뒤엎어서

온몸 가득
 흙먼지 뒤집어쓰며 땡강만 부리다
 날개 축축이 접은 채
 뿌옇게 물러나

나비 달을 물다



1943년 전북 순창에서 출생. 순창농고, 성균관대학을 거쳐 뉴욕 아이오나대에서 경영학 전공함. <한국문학예술>로 글마늘에 올라와서 한국문인협회와 미주한국문인협회에 들어 있음. 시집 『하늘에 섬이 떠서』가 있음.

김희주

조각달

원

종일

가슴에박혀

핏방울떨어뜨린

아픈가시하나

어둠따라마실가다

줄에걸렸네

외롭게떠있어

더욱아픈

어둠속의

가시

너



부산출생.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박경호

유턴(U-turn)

오던 길 되돌아가고 싶다
 조금은 비참하기도 한
 그러나
 되돌아가 미처 하지 못한 말 전할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사랑한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
 내 죽기 전에 그들의 그림자라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저기 내가 달려온 길목에서
 손뼉을 쳐주고, 물 한 컵 건네주던 사람들
 아, 나는 그들에게 고개 숙이려고
 과거로 핸들을 돌린다



경주출생. 시와 사람들 동인. 한국국제펜클럽 해외동포 신인 시부문 최우수상.

유턴을 한다.

박민흠

토막 난 목각인형의 비애

- 뉴욕의 지하철을 기다리며

1.

일천 계단을 내려 땅 끝에 섰다. 보이지 않는 침묵이 지하세계의 묵을 지그시 누르고 공기의 입자가 부서질 때마다 목각 인형들의 눈빛이 은밀하게 흔들렸다. 예식 치르듯 저마다 숫대처럼 다른 곳을 응시하며 허기진 삶의 비상벨을 누른다. 거대한 운명의 실핏줄이 터진다. 검고 비릿한 고난의 피냄새 온몸에 묻히며 전동차 안을 들어서니 침묵이 소리를 지른다. 가끔 목각인형들의 얼어붙은 입술 사이를 빠져나오는 신음소리 21세기 철새들의 마지막 여행을 위한 이륙 전 출발시동 같았다. 그는 허리 잘린 채 앉아있는 목각인형 틈 짝 벌리며 토막 난 허공을 치켜세운다.

2.

이곳에는 외로움이라든가 그리움이라든가 하는 냄새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은 어느 인간의 사치품목에 들어있는 명품들이지 목각인형들에겐 한낱 버려져야 마땅한 묘각*의 혐오품이었다. 인형들의 눈동자가 또각또각 움직일 때마다 소리는 비명이 되고 비단땀 한 마리 몸을 칭칭 감는다. 토막난 눈빛으로 가우랑가우랑 숲속의 솔 냄새



서울 출생(본적 마산). 한국시대사전 미주편집위원, 국제시인협회(ISP), 국제계관시인연합회(UPLI), 미국시인협회(ASP), 미동부문인협회 회원. 한·영 시번역가. The World Poetry 2004 (100명의 한국시인 詩 번역). 103위 순교성인 영문번역서 출간, 시집으로 『썩독새애가(哀歌)』, 『간큰 고등어』가 있음.

새를 찾았지만 꺾일 수 없는 침묵의 항변만 그물에 걸릴 뿐이다. 힌놈의 골짜기** 분사체가 되어 지난 세월 읊조리던 가슴 널뛰듯 뜨거워진다. 뜨거운 피톨들이 전동차 안에 불 지른다. 고난의 살 부서진 뼈 조각들이 펄펄 터진다. 그도 사리풀에 중독된 눈을 감고 몽환경에 빠진다.

3.

그럴싸한 전시회에 주검처럼 앉아있는 허공 사이로 천국 문이 열리며 매캐한 땅 끝 바람이 오면가면 새어나간다. 바람에 쓸려간 숫자만큼 쳐들어오는 또 다른 암묵의 침입자들, 그나마 남아있던 숨 한 토막 줍통 내밀듯 던지며 우울한 침묵을 자른다. 앓음앓음 속불 달래던 그가 기적처럼 일어나자 천국문은 닫히고 지옥문이 열렸다. 풀기 마른 가슴짓 고들고들한 하루를 아무렇게나 쑤셔넣으며 그가 꺾둑꺾둑 어둠을 썰며 귀환을 서두른다. 그는 말이 없고 세상도 말이 없고, 달빛마저 잘려나간 도시의 침묵 속에 홀연히 변신한 또 다른 목각인형의 토막난 숨만 또각또각 걸어간다. 언 발에 늘어진 봄 등줄기에서 몸 푸는 소리 난다.

* 묘각 : 보살이 수행하는 오십이 위(位)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단계. 온갖 번뇌를 끊어 버린 부처의 경지에 해당한다.

** 힌놈의 골짜기 : 구약 시대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4~5리 떨어진 곳의 골짜기. 어린이들을 불살라 우상에게 제사하였으며 쓰레기를 불사르는 곳이었다.

박복수

봄의 환상

바람 끝에 묻어온 봄
생명이 힘겨워
있을 지탱할 수 없었던
가늘고 긴 가지에
세월의
꿈이 돌아난다

저들도 내 마음 알아
방긋방긋 피리라

고단한 마음
두터운 외투 속에
조용히 살았으나
기다리게 되면
나뭇가지에 봄이 앓는다

늘어 가는 나날도



『수필과 비평』 수필 등단. 『문예운동』 시부문 신인상. 재미기독교문협 이사장 역임. 한국문화진흥재단 공동발행인. 한국문협, 미주문협, 국제펜클럽, 재미시협 회원.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외롭게 서 있는 거리의 가로수도 겨울을 이기고 다시 봄을 맞아 싹을 피운다. 우리 삶도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삶에 대한 욕망이 살아 있는 동안 꿈을 버릴 수 없다. 마른 가지라도 그 속에 흐르는 수액만 있으면 가지마다 싹이 돋아나듯이, 우리 마음속에 감추어진 삶의 열정도 하얀 하늘의 명주자락을 볼 때, 봄눈 녹는 소리를 들으며 꽃 피는 봄을 맞이한다.

백선영

편도 승차권

어린 시절
주위는 늘
끈적이는 매듭, 핏줄 동지였었다.

두근거리는 가슴만큼이나
분홍 살구꽃에 물든 얼굴들과
눈부시게 하얗던 이마에 맺힌
젊은 시절의 땀방울들
그 방울 속마다 꿈이 가득한
향기로운 동지, 햇 가족이었다.

그래, 이 모두가
돌아올 것이라 믿었었는데
시나브로 반 백년을 삭히고야
그것들은
날마다 새벽빛에 비추어보는
우주로 가는 편도 승차권



《한국일보》 신인상 시부문 입상, 『창조문학』 신인상 수상.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http://myhome.mijumunhak.com/sunyoung>

은빛 날개 푸덕이는 소리였음을 알게 되었다.

변재무

바보야

‘바보야’라는 제목이 붙은
 김수환 추기경의 자화상을 보고
 껄껄 웃었습니다
 세상엔 잘난 인간 잘난 물건 천지인데
 예수를 따르시는 당신은
 ‘바보예수’처럼
 바보가 되셨군요

내가 원하는 예수는
 사람을 바보로 이끄는
 바보 예수보다는
 세상에 힘이 되는
 현명하고 똑똑한 예수님
 그런데 큰 제자이신 당신은
 정말 바보 예수처럼
 정말 바보가 되셨군요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논픽션 당선, 『창조문화』 시부문 신인상. 글
 마루, 시와 사람들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오렌지글사랑모임 회
 장 역임.

나를 보세요
내 그림자만 밟고
거룩한 척 걸으며
주님의 불벼락이 떨어져도
먼 산만 바라보는
세상일에 길이 잘든 짐승입니다
바보가 되기 싫어
차라리 짐승으로 살아가는
이 바보는
당신과는 너무 다른 바보입니다.

송정룡

경우가 그렇지 아니한가

요세미티 공원에는 물만 빨아먹고도
 철 기둥 같은 근육을 만들어
 비바람 물리치고
 수령 삼천 년도 거뜬한 삼나무가 있다

카리브 해저에는 물만 마시고도
 돌처럼 단단한 뼈를 만들어
 백 센 파도를 견디어내며
 팔백 년을 살고 있는 세라토 포렐라*가 있다
 그뿐이라,
 불사의 동물을 찾아내는 중이란다

물은 기본이고
 쌀밥에 불고기
 온갖 산해진미는 다 찾아 먹고도
 백 년 새끼줄에 매달려 안간힘 쓰는 인간들,



대전출생.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사람도 최소
천 년은 살아야지.

* 세라토 포렐라 : 독일 괴팅겐대학 헬무트 레너트교수가 1997에 발견한, 최소 800년을 살아오고 있다는 오렌지 빛깔인 버섯 모양의 해저동물.

안선헌

물의 노래

물은
소리로 온다

징검다리 건너
거슬러 올라간 계곡
절벽을 뛰어내리는
모습으로도 온다

심장의 박동
잠자는 영혼을 깨우며
계곡을 박차고 떠난 긴 여정

어디?
내 삶의 한 뼘이라도
그 용기 가진 적 있었던가

그 물길 따라가면



경남 마산에서 태어남. 2002년 『순수문학』으로 등단.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강을 만난다
삶의 절정을 향해
주저 없는 저 물이 되고 싶다.

오연희

‘깜빡깜빡’

놓쳐버린 생각
 떠나버린 기억
 뜬금없이 살아나 나를 절망케 하는
 점점 빈도가 더해지는
 ‘깜빡깜빡’

한 생각을 이어주지 못하고
 어디 가 있었을까
 그 틈을
 새록새록 비집고 드는
 케케묵은 기억들
 어디 살고 있었을까

문 밖만 나서면 집을 찾지 못해
 온 동네를 발각 뒤집던
 90세 할머니
 할아버지와 사랑할 때의 한순간을



『심상』시 등단, 『해외문학』수필 등단, 미주 《중앙일보》신춘문에 신인문학상(년픽션), 중앙일보 교육섹션 칼럼집필(2002년부터 만5년간), 미주한국문인협회이사, 웹 관리 위원장, 저서로는 시집 『호흡하는 것들은 모두 빛이다』, 산문집 『시차 속으로』가 있다.

어제 일처럼 떠올랐다
수백 번 반복해도 그때의 행복을
고스란히 되살려내
우리를 질리게 하던,

영원을 향한 숨 고르기인가
'깜빡깜빡' 보이는 저승의 불빛
이승의 '깜빡깜빡' 처럼
불현듯 아니, 무심한 듯
그렇게 올까

이승 생각 '깜빡깜빡' 날까

오정방

이소연, 지구로 귀환한 첫 우주인아!

드디어 지구로 귀환하였구나
 막중한 임무를 잘 수행하고
 건강한 모습을 보이며
 우리 곁으로 돌아와 주었구나
 보배, 나라의 보배로다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 온 영웅을
 쌍수를 들어 환영 하나니
 활기찬 웃음으로 손을 흔들어
 앞으로 큰 꿈을 펼쳐 나갈
 굳은 의지를 표해주려무나
 한국 첫 우주인인 그대는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가는
 튼튼한 초석이 되었나니
 그 토대 위에 이룩될
 조국의 미래가 기대되는구나
 한 발 가까워진 우주로의 길이
 그대로 인하여



『세기문학』 시, 미주 《중앙일보》 시조, 『문학과 육필』 수필 부문 등단.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 오레곤문화회 회장. 시집 『다시 태어나도 나는 그대를 선택하리』, 『그리운 독도』, 『영혼까지 독도에 산골하고』(공저) <http://www.poet.or.kr/ojb>

이제 활로를 찾게 되었나니
참으로 장하다 대한의 딸이여!

〈2008. 4. 19〉

*한국 첫 우주인 이소연 씨가 임무수행을 마치고 우주정거장을 떠나 4월 19일 오후 5시 30분 지구로 무사 귀환하므로 12일간의 우주 드라마는 막을 내렸다. 예정 착지지점 420km나 벗어나 한 때 마음을 졸였다. 귀환후 혈압 121-73 정상.

유봉희

겨울잠

어떤 청개구리는 낙엽 몇 장으로
 겨울잠을 잔다지요
 제가 살던 나무 밑 낙엽 몇 장으로
 겨울 꿈을 끝다지요
 혈관과 피까지 얼려 놓고
 죽음의 문턱을 베고 잔다지요

한치 앞을 못 보고 꾸는 먼 꿈
 오늘밤은 어떤 꿈길에 들었을까요
 오직 피돌기 하는 심장과 대동맥 어름*을
 후딱 짚어보고
 다시 돌아가는 꿈길에서
 죽음의 문턱을 막 넘어서 오는
 숨 가쁜 봄을 만났을까요

제 몸같이 파란
 엽서 한 장 받았을까요.

* 서로 맞닿는 곳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2002년 『문학과 창작』 신인상. 저서로는 시집 『소금화석』(2003년), 『빛 만년의 걸음』(2006년), 『英譯 한국현대시 99인선』(2006년)이 있다.

이기윤

옹달샘

거울 닮았구나.
주위를 다 품네.
솟는 물소리 시원하다.

반사하는 나무들
흔들리는 몸
비유 상징이
각색 꽃들 열매들
새 모습으로 다가온다.

네 앞에 허리 굽혀
오색 그림에
깊은 뜻 감동을 녹음하니

일렁이는 가슴 속
시(詩)가 꽃 핀다.



고려대 국문과 졸업, 문교부 장관 표창, 한의학박사 한의대 교수, 한국문인협회, 미주한국문인협회, 재미시인협회, 미주크리스찬문인협회 회원, 한맥문학가협회, gma(Global Mission Association) 이사, 오렌지글사 랑모임 회장. 시집 『환한 그리움에』(합동)외 12권.
<http://myhome.mijumunhak.com/zongpa>

이서영

그리운 들국화

가냘픈 영혼들이 있는 들판
저기가 그림다

추수 끝난 들녘에
낙엽 지는 산 속에
바위틈에

푸른 하늘을 담고
가을 빛이 묻어나는
여린 자태로
지금도
바람에 흔들리고 있겠지

아, 그리운 어릴 적 간난이 누이의 모습



경기도 가평 출생. 미주 한국일보 문예공모 시부문 입선
미주한국문인협회 신인상 시부문 당선.
미국산부인과 전문의
한국시인협회 회원

이성열

춘정

입내새가 밤새 꺾
 짝 부르는 소리 흘리는 봄엔
 홀로 지새야 하는 밤이 길고도 길었다
 선잠이 들었나 하면 꿈에서 깨었고
 깨어 덩굴다 보면 새벽이 왔다
 밖엔 아직도 새가 울고 이룬데
 보행이나 나설까 하고 나가니
 앞집 문은 환하게 열려 있고
 그 앞에 세워진 차안엔 불빛이 밝았다
 운전석에 앉은 여자가 마약
 전조등을 켜고 떠나려는데
 파자마 차림의 젊은이가
 차창으로 얼굴을 디밀고
 밤 새 나눈 정도 모자라 부둥켜 안고
 입 맞추며 보내는 길 아쉬워
 놓아주질 않고 있었다



“APA” 우수 신인상 수상 등단, 미주 《중앙일보》 단편소설 당선. ‘진열
 장의 시(Poetry in the Window)’ 상 수상. LA Poetry Festival 구성위
 원, 미주한국문인협회 이사장 역임. 저서로는 시집 『바람은 하늘나무』,
 『하얀 틈새』 등이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yisungyul>

이용애

겨울 나무

골목 어귀에
 홀로 서 있는 정원수
 뭉툭뭉툭 잘려 나간 팔 쳐들고
 겨울 바람에 떨고 섰다
 너무 아려 내리지도 못 한 채

무성한 가지 키워
 그늘 풍성히 드리운 죄였을까
 저토록 무참하게
 난도질을 당한 까닭은

소리 죽여 호소하는 너를
 차마 바로 볼 수 없어
 고개 돌리고 지나는데
 빗방울이 후두둑 내 볼을 적신다
 아! 봄을 재촉하는 이 비



충북 음성 출생. 1974년 미국 이주. 1998년 미주 중앙일보 신춘문에 시 당선. 1998년 『문학세계』 수필 당선. 1998년 『한글문학』 시 당선. 1999년 한국 『현대시조』 신인상 당선. 미주 한국문인협회 회원. 현재 미주 캘리포니아 거주.

봄이 오면
저 아린 몸에서도
새 앞이 돌아 날 수 있을까
잔 가지도 뺏어 날 수 있을까

흥하게 잘린 팔
눈부신 새 옷으로 감싸고
환하게 웃을 수 있을 거야
봄이 오면
그래, 봄이 오면

이초혜

폭포수

인생여정의 동반자를 찾아
굽이 굽이
오래 해매이더니
드디어
둘이 하나를 이루었구나
쏟아지는 저 축복의 소리

제 각기 흘러가던
두 줄기 강물이
엄청난 폭포수로
새롭게 태어나
힘차게 외치는
저 기쁨에 찬 함성
나이야 가라

트인 하늘 아래
가는 곳마다



이화여대 국문과 졸업. 시/한국의 문학세계, 시조/한국의 시조문학, 수필/크리스천문학으로 등단. 미국방외국어대학 한국어교수 역임. 제 2회 해외동포문학창작상 수상.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시집 『창밖엔 치자꽃이』.

화평의 꽃을 피워라

아름답고 유연한
사랑의 협주곡
딸의 결혼식.

장태숙

늙은 어머니를 씻기며

오랜 만에 찾은 고국에서의 여행길
 숙소 욕실에서 늙은 어머니를 씻긴다
 내 무심의 죄, 사함을 바라듯 목욕수건에 듬뿍
 비누거품 일궈 병든 어머니를 씻긴다

텅 빈 눈동자 속 다 타버린 심지
 흰 소금가루 내려앉아
 한웅큼도 안 되는 쓸쓸한 머리카락
 가느다란 뼈 위로 쓸려가는 살가죽이
 시든 수선화 노란 꽃잎 같다

태평양 거리만큼의 삶은
 주름진 세월의 구비마다 엉경귀 같은 자생을 키웠지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없는 침식된 시간들이
 내 안에 서러운 지층을 쌓는데
 파도처럼 들락거리는 기억
 애써 숨아내는 어머니의 투명한 눈빛



1990년 『문학공간』 수필부문 신인상, 1992년 『창조문학』 시 부문 신인상, 2001년 창조문학가상. 저서로는 시집 『내 영혼 머무는 곳에』, 『그곳에 내가 걸려있다』, 『고요 속의 파문』이 있다.

바라보는 마음에 무성한 서리가 내린다

어머니

한 시절, 쌀 한 가마라고 놀려대던 아버지 가신 후

그 젊은 몸무게 삶에 던져주고

자식들에 넘겨주고

마른 인형처럼 훌쩍 가벼워졌다

이제 다이어트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

장효정

문병

오늘
9순의 친구 어머님 병상에서
황혼의 긴 그림자 드리우고
마른 꽃대로 누워계신
우리 어머니를 만났다

삶의 긴 여정에서 허리가 휘고
마음 팍팍했어도
오직 자식들에게 목숨 걸으셨던
어머니

무심의 강물인 양 욕심 없이
순리대로만 흐르며 쌓았던
모래 능선이 깎여 나가는 소리
거대한 방죽이 허물어지는 소리

속절없는 세월 앞에



강릉출생. 이화여대 영문과 졸업, 『한맥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내가 나를 엿보다』가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changhyojung>

어느 것 하나 움켜 쥘 힘이 없어
세상 끝에서 날개를 접고
두려움, 서러움, 노여움도 험겁게 내려놓고
죽음의 어깨를 쓰다듬고 계시는 저 평온

이승의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내게 생의 심원한 음조를 들려주시는
어머니
덤석 내 가슴을 깨무신다.

정국희

어디에서 무얼 할까

그늘뿐이어도 좋은
 변방 외진 곳
 아슬아슬 빛을 받아
 혈혈단신 곧게 뻗은 대나무
 저문 저녁이면
 서늘한 등줄기로 창을 한다
 정밀한 고요를 품고 사는
 불빛 없는 그곳을 지날 때면
 어릴 적 뒷산 밑에 살던
 당골네 집 냄새가 난다
 대처에서 큰굿하고 돌아와
 귀신 씌어 죽은 당골네
 장사지낸 날 밤
 천지간에 혼자 된 피붙이가
 짐승 울음 울어대던 그 대나무집
 그 설움 허물고 어디에서 무얼 할까
 어느 하늘 모퉁이서



완도출생.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시문학회 회원.

저렇듯 어둠 밀어내며
웅골차게 서 있는지
대나무 앞을 지날 때면
항상 그 집 냄새가 난다.

정문선

봄

뒤 뜰 한 구석에는
아직도 겨울의 흔적이 남아 있어도
나무는 아랑곳하지 않고 기지개를 편다

나 또한 두 팔을 벌려
겨울 내내 움추린 몸을 펴면
어깨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는
따스한 봄의 정령(精靈)들

나도 모르게 윗 단추 하나 풀면
가슴으로 파고드는
저 따스한 햇살들 간지럽다

정원의 칠 벗겨진 의자에 앉아
꽃잎 하나 둘 놓아
단정하게 우러난 연분홍 빛 진달래 차
입가로 가져가면



진해출생. 경희대영문과졸업. 『창조문화』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저서로는 시집 『그것은 촛불이었다』가 있다.

온몸으로 스며드는 봄의 향기

아직은 아니다

심술궂게 봄기운 쓸어가는

기습성 찬 바람에 옷깃을 여미어도

발끝 밀어 올리는 봄기운에

나는 그만 7도쯤 기울어지고

이 나이에

이제 막 눈뜨는

빛 고운 연두 빛 아기 순(荀)이 된다

정어빙

독백

1.

축축한 아침

빨래터 옆 벤치에는 언제부터일까

욕심이 나도록 흰칠한 키에 덩수룩한 수염 위로 우뚝 선 콧날

틀림없는 탈렌트 갇힌 그가

열심히 손짓을 해가며 중얼거리다가

불뚝 일어서서

하늘에 샷대질을 하며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터트리고 있다.

2.

몸보다 훨씬 큰 잠바 주머니에서 뜯어낸 빵 조각을 씹다가

튀, 튀, 발밑에 뱉기도 하는데

비둘기 한 쌍 날아와 그의 다리를 빙빙 감아 돌며

구,구,구,구, 익숙해진 언어로 먹이를 쫓다.

3.

긴 손가락 사이에 낀 꿈초



광주출생. 『창조문학』 시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소리 없는 희열이 지나고
천천히 흠어지는 연기에
길고 가는 한숨을 묻혀내며
주문을 원다.

4.
빨랫줄이 늘어진다.
몸무게만한 바람이 흔들린다.

정춘자

무지개

푸른 소나무
곱게 물드는 은행나무

세상에 피고 지는
아름답고 경이로운 꽃들

울고 웃고 화답하는
아름다운 새들

삶 속에서
만난 사랑스럽던 사람들

세상에 줄줄이 엮어온
귀한 일들, 글들,

매일매일
머릿속에 꼭꼭 채워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 졸업. 문학 21 등단. 오렌지글사랑 모임, 시와 사람들 동인.

훗날, 훗날
무지개로 솟아야지

조영철

가짜 청자

몇 해 전에 색깔이 그럴 듯 해
 들여놓은 가짜 청자
 방문을 열자 나를 반긴다

하루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한 나와
 본래 가짜로 태어난 너와의 관계로
 짜여진 공간에서 눈길이 오간다

가짜라는 확실한 이름으로
 한 자리 차지한 너와
 진짜처럼 행세하는 나와는
 엄청난 거리

오늘따라 앓은 자리가 바뀐 것처럼
 헛것으로 보이는 연유는
 창틈으로 내려 꽃는
 햇살 때문인가 보다.



부산출생. 『창조문화』 신인상 수상. 서북미한인 미술인협회 이사장, 한국문인협회 회원, 시와 사람들 동인.

조주현

이슬

폴잎에 돌아난
영롱한 눈동자
이슬의 눈속에
내가 있다

방울 방울
밤새워 공들인
하늘 보석.

내 영혼의 빈 잔에
맑고 고운 시 한편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꿈
메아리로 오르고

우주를 품는
하늘의 입김.



이화여자대학교 교육과 졸업. 1999년 《한국일보》 문예공모 시부문 입선.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The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 Member. 2006년 8월과 12월, International Library of Poetry로부터 Editor's Choice Award 2회 수상, 작품은 "Timesless Voice" 시집에 실림.

새 아침 마련하고
해그늘에 스러져 버릴
목숨에도
하늘빛 가누는 오성(悟性)있어

미래에 숨쉬는
누리의 눈동자.

너를 보면
삶과 죽음
맑은 고요가 머물고
영혼 깊은 곳에서 영원을 본다

차신재

강물

내가 버리지 못하는 것을
버리며

내가 씻어내지 못하는 것을
씻어내며

내가 끌어안지 못하는 것을
끌어안으며

나처럼
햇살에 드러내고자 나서는 것 없이

나처럼
내리는 빗물 튕겨내지 않고 받아

드넓은 바다에 이르는 너,
해탈.



강릉 출생. 『심상』 등단. 시와 사람들 동인.

최석봉

데스벨리 새벽하늘에 가오리연을 띄우다

3월엔 데스벨리로
푸른 봄을 만나러 가자

해 뜨기 전 아침 노을
오랜지 산야도 보고

잠시 피었다 지는 풀꽃을 마주하고
사랑을 이야기하자

푸석푸석한 소금 층 사이로 흐르는 맑은 물
거슬러 오르는 펴 피시(Pup fish)와 물장난도 치고

늦은 밤 쏟아지는 별 아래
정지용의 향수를 슬프게 합창하자

눈 쌓인 높은 산 계곡 아래
하얗게 깔린 소금강을 달려



『창조문학』 시, 『아동문학』 동시 등단. 미주 시문학 회장 역임. 현재 미주한국문인협회 부회장. 저서로는 시집 『원원 세분 오 에잇 베니스 블루버드』, 『하얀강』, 『풍경은 혼자 울지 않는다』, 『사랑한다는 소리는 아름답다』가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choisukbong>

가오리연도 띄우리

최익철

제비의 노래

지지배
지지배배
님 찾는 소리

하늘
땅에서
지지배 찾는 소리

맑은 가을 하늘
다 내어준 들에는
공장굴뚝 보인다

노총각
지지배
지즈봐야

봄 오면 만난다고



강릉 출생. 월간 『순수문학』 등단. 시집 『빛바랜 사진첩』.
<http://myhome.mijumunhak.com/choiraphael>

지지배

지지배배

한길수

재봉틀

투명한 비닐 속 거친 주름
 오래된 기억 뒤편에 앉아있는
 눈길 와 닿는 유물이 된 미라
 태평양 건너와 수줍게 손 내밀어
 실타래 풀어 엮던 이민의 여정

낮선 이국 내딛은 삼십 년 걸음
 수천 갈래 윗실과 밑실 이어놓고
 시집을 때 성한 몸 가린 겹겹 옷
 고국으로 떠나시는 초라한 뒷모습
 발판 떠난 날실의 아득한 함성 줄

늦은 저녁까지
 노인 수발로 핏줄 간수한 씨실
 오한으로 멎들어 가는 동맥경화
 약기운 떨어져 가늘게 떠는 혈관
 모태에서 양수 마시며 들었던 울림



충북 청원 출생. 경희사이버대학 문예창작과 졸업. 『시와 시학』 추천 당선, 『현대인』 평론 천료, 빈터 동인,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미주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방 한 칸 가득 채운 햇볕의 울음이다

돌이키면 편하게 산 저 박음질
커진 몸보다 작아지는 옷 때문에
눈 흘금한 날들이 오래도록 아리다
떠난 자리 고요에 잠 못 이루고
불현듯 든 전화기에 실밥 붙어있다